

마을 도서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이은진 |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난 아주 우연히 마을 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1993년 '책의 해'가 끝나면서 지역의 민간도서관운동을 하던 전세중 책사랑 관장과 책의 해 행사에 관여했던 박영석 당시 《경남신문》기자가 찾아와 마을도서관을 만드는 운동에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때만 해도, 나로서는 직업 속성상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형편이기는 했지만, 아직 자녀와 주부, 노인을 위한 마을 도서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못했다. 나는 물론 강의준비와 연구목적으로 학교도서관과 사회과학도서관을 주로 이용한다.

학교도서관에는 아직도 전문 사서가 부족한 점이 아쉽기도 하지만, 사회과학도서관에서 보완받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집안 식구들, 마을 사람들을 위한 도서는 대부분 근처 시청이나 새마을 문고, 청년회 등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상업적인 책 대여점의 도움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때 마침 마을 도서관 만들기 운동을 하는 분들을 만나자 나는 미국 유학시절 아이들이 초등학교 숙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음악 앨범을 빌리기도 하고, 여행갈 때 미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갔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내가 거주했던 LA의 마을 도서관은 마을 체육관, 공원과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야구뿐만 아니라, 동화책 읽기와 연극 같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었다.

그래 우리도 마을 도서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집에는 책이 많지만 도서관에는 책이 없는 세

상을, 이제 도서관에 책이 많아 주민들이 마음껏 빌려 볼 수 있는 체제로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1994년 10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경남정보사회연구소를 만들었다.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창원에 마을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도서관은 시에 있는 여유공간을 활용해 시의 기초 설비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위탁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은 30~40평 정도의 규모로 처음에 시작할 때 3천만원 정도의 기초자금이 소요된다. 만일 네대의 컴퓨터와 통신시설, 프린터 두대 정도를 갖춰 인터넷 카페처럼 꾸미려면 추가로 1천 5백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런 도서관이 창원에는 22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는 아파트의 공공 건물을 아파트 자치회와 시가 계약해 건물을 무료로 빌려주고, 시가 기초자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만든 경우도 있다. 또는 아파트 자치회가 연구소와 계약해 위탁 운영하는 곳도 생겼다. 대개 운영자금은 200만원 정도 시가 지원하며, 이를 기초로 자원봉사자의 노력, 주민들의 책 기증, 사회교육을 통한 자체적인 수입확보, 행사시 기업이나 인근 주민들의 협찬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마을 도서관의 특징은 마을 사람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도 전문적인 사서나 프로그래머, 정보통신전문가 등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강사, 수강생, 프로그램 기획자, 수서위원회, 마을신문을 위한 기자 등이 모두 주민들 가운데서 '발굴' 된다. 중요한 점은 공동체적 마을 도서관 운영이 가만히 두어도 스스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1960년대의 새마을 문고가 실패한 것은 너무 공동체적인 요소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항상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훈련을 받고, 다른 사례들을 점검하고, 경험을 공유할 때 마을 도서관은 성공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서정희

출판저널·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